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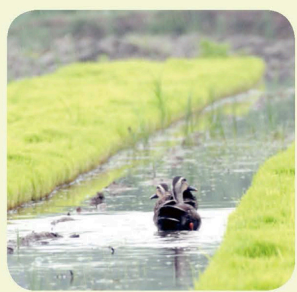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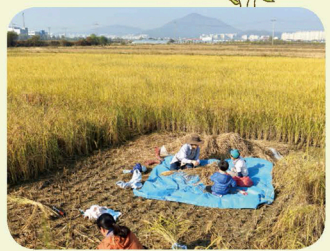
사랑 · 어울림 · 꿈

광장



아스단 7세 들살림캠프

사랑



어울림



꿈



광장

01	머리글 2	05	세상을 보는 창 ①, ② 25
	개미 시민의 선택(4) 김기현		최지유, 엄기숙
02	교실탐방 7	06	지역이슈 27
	[아기스포츠탄]		[대장들널 생명포럼]
	봄의 새싹처럼 파릇파릇한,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공지훈 어머니		우리에게 대장들널 지키기 운동이 절실한 이유 최진우
	아기스포츠탄을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시원 어머니		대장들널 지키기 시민캠페인
	[어린이Y]	07	회원광장 39
	철원캠프에 다녀와서~ 김서윤		[부천시민평화대학] 회복적 정의 워크숍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봄 직원 수련회를 다녀와서 유혜수
	2018 자치활동 동아리 모집합니다		[문화산책]
03	만화로 보는 밥상톡톡 15		집에 대한 생각「작은 집 큰 생각」
	밥상다섯.		왕정현
	채소 속 영양소가 궁금해! 연은미	08	의창한담(醫窓閑談) 45
04	클럽이야기 19		[진료실에서 나누는 세상 이야기]
	[등대생협]		진짜 우황청심원계를 만들자
	초심으로 돌아가는... 이선화		박중훈
	[녹색가게] 교복나눔장터 봉사활동 참여를 마치고... 최지민	09	우리 생활문화 이야기 (34) 47
	[선용] 내가 선용과 인연을 맺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 서숙경		“우리는 흥익인간” 한면희
		10	부천Y 이모저모 49
			주요일정 및 클럽일정 54

발행인 김영주 편집인 김기현 발행일 2018년 3월 20일 발행처 부천YMCA
 광장지판단 박중훈, 한정숙, 왕정현, 김현주, 노진영, 연은미, 박명애, 박다정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69번길 42(중동) 전화 032)325-3100
 팩스 032)325-3108 홈페이지 www.pcyymca.or.kr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한국YMCA목적문

한국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MCA새 목적문 전문, 1976년 제정, 2014년 개정)



개미 시민¹⁾의 선택(4)²⁾

무력한 개인에서 세상의 주인으로



부천YMCA 사무총장 김 기 현

“이런 일이 가능해요?”

2000년대 초반, 독일에서 온 시민교육 전문가가 시민교육으로 인한 변화 사례를 말하다 “독일의 한 지방도시에서 청소년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했는데 기성 정치인들이 다 무관심하자 청소년들 스스로 ‘청소년 정당’을 만들어 2명의 청소년이 시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고 했다. 참가자들이 놀라서 “그것이 가능하냐?” “피선거권이 언제부터냐?” “시의회를 (수업이 끝나고) 저녁에 하냐?”며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나중에 알고보니 독일은 기민당, 사민당, 녹색당 등 거대 정당 외에 지역정당(Local Party)이 가능해서 우리가 시민단체 만들 듯 손쉽게 정당을 만들고, 시민들의 선택만 받으면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1) 그냥 재미로 만든 조어(造語)이다. 개미처럼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이 잔머리만 굴리며 군림하는 배짱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알고, 행동해야 한다.

2) “지방자치 무용론”을 심심찮게 듣는다. 심정적으로는 공감되지만, 깊게 생각하면 왜곡된 선거제도, 권위주의, 독단과 독선이 용납되는 제도적 허점, 승진에만 연연하는 공직사회, 시민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이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문제를 ‘시민의 눈’으로 들여다본다.

오래전, 일본을 방문한 기회에 와세다 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일본 생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인지?” 묻은 적이 있는데 뜻밖에도 “(지방선거 때)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앞집 아저씨가 자민당 선거자원봉사자 차림³⁾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 옆집 아저씨는 공산당⁴⁾ 선거자원봉사자 차림으로 나와서 우연히 만났는데....둘이 반갑게 악수하며 ‘오늘도 수고하자’고 서로 파이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2000년대 초반 일본 시민운동 단체를 견학하다 ‘가나가와 네트⁵⁾’를 방문하게 되었다. ‘가나가와 네트’는 여성들이 생협 활동을 하다보니 지역의 생활문제(환경, 교육, 안전, 복지 등)에 관심이 생기고, 생활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게 되었는데 기성정치인들이 권력다툼에만 몰두하고, 정작 해결해야 할 생활문제에는 무관심하자 생협 여성들이, 직접 지역정당을 만들고, 자신들의 대표를 시의회에 내보냈다. 하지만 **아마추어 정치를 표방**하며 2번 이상은 시의원을 못하게 함으로 직업정치가 아니라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는 ‘자전거 정치’로 유명한 단체이다.

필자가 방문하던 날은 마침 ‘이라크 전쟁 반대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켓을 만들고, 물품을 챙기고, 토론하는 모습에서 **누가 시의원이고, 누가 회원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권위나 거리감은 전혀 없고, 친구이자 한 팀이었다.** 가나가와 네트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참가자 수가 작던 많던 ‘미니포럼’을 개최하여 시민·전문가·시의원·공무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일 년에 30차례 이상을 진행했다고 한다.

‘참 자치란 무엇인가?(미국의 지방자치 이야기)’(문영훈 저)는 워싱턴주 스노콜미시에서 1년 6개월간 근무했던 우리나라 공무원이 쓴 책이다. 이 책을 보면 **시장과 시의원, 공무원, 시민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평등하다. 서로 존중하고, 한 팀**

3) 일본은 선거 때 자원봉사자들이 몸에 깃발을 달고, 큰 글씨도 붙이며 활발하게 활동한다.

4) 대다수 나라에서 공산당은 합법정당이다.

5) 생협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만든 지역정당(Local Party)

으로 일하려 한다. 권위주의나 수직적 관계는 상상하기 어렵고, 시의원이라고 소리 지르거나 위압적인 모습, 공무원이라고 규정만 들이대고 정보를 독점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시장은 시장실이나 비서도 따로 없고, 시의회는 2주에 한번씩 저녁에 열리나 진지하고 전문적이다. 권력을 가졌다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나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다.

악화되는 부천의 환경지표

부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 28명을 새로 뽑는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김만수 부천시장은 인구밀도 전국 2위⁶⁾, 산림면적 전국 최하위(13.6%), 미세먼지 오염 전국 7위인 부천에서 각종 초대형 개발사업을 강행했다. ‘부천시청옆 시민의 땅 1만평’⁷⁾을 매각했고,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신세계 복합쇼핑몰’⁸⁾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대장동 산업공단’⁹⁾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여론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의

6) 전국 1위 서울 16,812명(㎢), 2위 부천 16,261명(㎢), 1위 서울과는 엇비슷하고, 3위 안양 10,418(㎢)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7) 시민의 땅 1만명에 49층 고층아파트 12개 동이 들어서고 있다.

8) 부천시 최초로 주민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국 무산되었다.

9) 재두루미, 금개구리 등 법정보호종만 35종이 서식하는 대장동널 120만평 중 70만평을 산업공단으로 개발하고 있다.

전수령 과정은 진행되지 않았다. 가뜰이나 열악한 **부친의 환경지표를 더 악화시키는 개발행정을 독선과 독단으로 강행한 것이다.** 권력을 잡으면 변질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할까?

정치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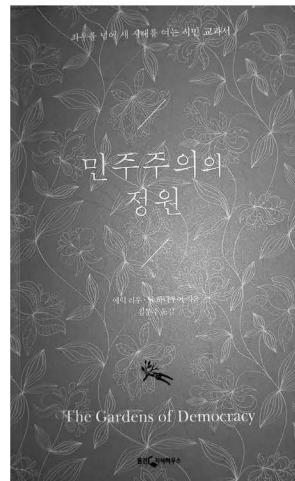
미국을 대표하는 교육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파커 J. 파머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정치는 절대로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오래되고 고귀한 인간적인 노력이다.” (41쪽)

“거기는 영속적인 복잡성과 끊임없는 긴장이 담겨있다. 개개인과 국가들은 여러 얼굴을 지니고 있어서 선한 것을 이룰 수도 있으면서 악한 것으로 쉽게 기울고, 그 갈등 속에 묶여 있기도 한다.” (81쪽)

‘좌우를 넘어 새 시대를 여는 시민 교과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민주주의의 정원』(에릭 리우, 닉 하나우어)에서 저자들은 최근 수 십 년간의 사회변화를 이렇게 표현한다.

“단순 → 복잡
원자론적 → 네트워크적
평형 → 비평형
선형적 → 비선형
기계론적 → 행태론적
효율적 → 효과적
예측적 → 적응적
독립적 → 상호의존적
합리적 계산 → 비합리적 어림잡기
이기심 → 강한 호혜



승 패 → 승-승 또는 패-패

경쟁 → 협력" (50쪽)

우리 사회와 문화는 과거에 묶여 있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위와 같은 변화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완전히 이기적이며 원자화되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호혜적이고 네트워크화되며 상호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233쪽) 는 저자의 말은 특히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해당된다.

부천의 주인은 시민이다. 하지만 선거에서 선출된 (실제로 위임된 권력인) 부천시장과 부천시의원들이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치,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미세먼지에 대해 진지한 대안을 마련하는 정치, 걷고 싶은 길을 만들고, 대규모로 개발하기보다 재생하는 정치, 효율적이고 작은 경제구조를 촉진하는 정치. 이런 정치를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요구하고, 행동해야 한다. 결국 시민들이 참여하는 만큼, 꼭 그만큼 사회는 변한다.



아기스포츠탄

봄의 새싹처럼 파릇파릇한,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한가람반 공지훈 어머니

처음 YMCA에 입단하던 5세의 3월, 모든 것이 낯설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너희들을 바라보며 함께 입단한 것 같이 떨리는 마음이었어. 그 시간들이 바로 며칠 전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니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아 아쉽단다.

이제 3년간의 YMCA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을 하는 너희들에게 무엇보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몸도 마음도 한 뼘은 자란 것 같아 대견한 마음이 들어. 소중했던 순간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아 함께했던 공동체 한마당.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끝까지 올랐던 지리산 산행. 여럿이 함께 응원하며 포기하지 않고 달렸던 마라톤 대회. 오랜 시간 연습에 지친 기색도 없이 멋지게 완성했던 체육대회.

아직은 어린 나이로 엄마, 아빠 떨어져서 지내기 힘들었을 텐데 의젓하고 씩씩하게 잘 다녀온 들살림 캠프와 졸업여행…….

너희들이 세상에 한걸음씩 나아가 체험하고, 느끼며 자라는 만큼 엄마, 아빠도 함께 자랐단다. 행복했던 YMCA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는 너희들에게 작은 바람을 전해본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잘한 일은 인정해주며,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 어려운 이웃과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 내밀 줄 아는 따뜻한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 옳은 일에 목소리를 내며 행동할 줄 아는 정의로운 마음, 새로움에 과감히 도전하는 자신감,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날 줄 아는 용기, 풀 한 포기, 작은 벌레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미래의 주역인 너희들이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멋지게 가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새로운 세상으로 첫 걸음 내딛는 너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보낸다.

앞으로 시작될 초등학교의 생활이 때로는 낯설고, 서툴더라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하며 큰 소리로 응원하고 있는 엄마, 아빠가 있단다.

아들, 딸!!!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기스포츠단을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한겨레반 시원 어머니

2015년 3월 4일은 우리 아이들이 아기스포츠단에 입단한 날입니다.

그 날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장소에서 낯선 곳을 제 집처럼 뛰어다니던 아이들부터 아직은 엄마 품을 벗어나기가 겁나 울먹이던 아이들까지... 우리 친구들은 기억이 나지 않을지 몰라도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 선생님들은 그 날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엄마, 아빠들은 ‘학교’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우리 아이가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드실꺼라 생각합니다.

3년 전 그 날, 어리게만 보이던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친구를 만들고, 나눔을 배우고, 협동을 경험하며 세상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씩씩한 어린이로 자랐습니다. 또 제 아이는 짝사랑의 감정과 질투의 감정과 부끄러움의 감정, 그리고 아직은 서투르지만 이 감정들을 표현하는 법을 이곳에서 배우며 감성적이고 공감할 줄 아는 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YMCA에서 배우고 자란 우리 친구들은 누구보다 잘 해내리라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가셔도 ‘부천YMCA 아기스포츠단’답게 늘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나누고 서로 돕고 약한 것들을 더 사랑하는 초등학생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씩씩하게 자란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아빠도 여

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자랑스럽습니다. 조금은 더 나은 세상과 교육을 꿈꾸며 아기사포츠단에서 만난 부모님들. 서로에게 늘 지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이와 남의 아이를 가르치 않고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주셔서 우리는 지난 시간동안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 받은 사랑은 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누어주며 자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늘 확고한 교육 철학으로 무장하고서, 그러면서도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늘 소통하며 아기사포츠단을 꾸려주신 선생님들. 사실 이 모든 것은 선생님들 덕입니다.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제가 다 모아서 대신 말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천YMCA 아기사포츠단 졸업을 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친구들의 빛나고 즐거운 앞날을 위해서 큰 박수를 치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Y

철원캠프에 다녀와서~~



어린이 Y 김 서 윤

철원에 있는 국경선평화학교에는 다녀왔다.

국경선평화학교는 DMZ 안에 있었다. DMZ안에 들어갈 때 우리 차에 군인이 들어왔는데 애들이 군인 총을 만졌다고 호들갑을 떨어 버스 안이 시끄러웠다.

국경선평화학교에 도착해서는 교장선생님께서 평화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다. 북한의 원래 이름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냥 북한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것을 알고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그 다음에 모노레일을 타고 평화전망대에 올라가서 북한 땅을 보았다. 나는 빨리 북한과 통일이 되어서 북한 땅에 가보고 싶어졌다. 뭔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이 많을 것 같기 때문이다.

둘째날은 선생님이 떡국을 끓여주셔서 먹었다. 그리고 소이산에 올라갔다.

산에 올라갈 때 선생님께서 애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평화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지만 생각보다는 말을 못해서 답답하기만 했다.

승일교에도 갔다. 승일교는 6.25 전쟁 전엔 북한이 반을 만들었고 반은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가 만들어 다리를 완성했다고 한다. 다리 모양을 보기 위해 계단을 내려갔는데 철원 얼음축제 때 만들어 놓은 얼음조각도 보고 얼음썰매도 탔다. 장갑이 없어 손이 시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신나게 놀고 난 후에 밥맛은 정말 꿀맛이었다. 두 그릇이나 푹딱 비우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자!

- 2018 자치활동 동아리 모집합니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함께 도전'하고, '신나는 세상공부'하며 '지금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자치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24세의 부천청소년 3인 이상의 동아리 혹은 개인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 사회참여, 봉사, 역사알기, 인권, 환경, 진로, 창업, 인문, 문화다양성, 미디어, 청소년정치참여, 과학, 스포츠, 외국어 등 다양한 참여 분야가 있구요. 그 외에도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도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그건 대학가서 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주변의 많은 어른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행, 취미생활, 외모 가꾸기, 독서, 하다못해 잠자기까지! 그 모두를 대학 입학 이후로 미루고 열심히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대학에 가는 순간 모든 욕구와 어려움은 마법처럼 해소될 것이라구요. 하지만 막상 대학에 가고 나니 그런 마법이 일어나진 않았습시다. ‘나’는 여전히 ‘나’고, 대학생으로 ‘변신’한다고 다른 사람, 다른 인생이 펼쳐지진 않더라고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 지금은 인내하고 참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이 세상의 주인 중의 하나로 숨 쉬며 살아가고 있고, 하고 싶은 일 꿈꾸는 존재입니다. 미래의 ‘나’만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위한 과정일 뿐일까요? 하지만 삶은 둥글고, 인생의 하루는 매일이 공평하게 소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정을 가지고 해 본 경험은 인생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보물입니다. 누워만 있는 아기 때 빨고 싶은 손가락 발가락을 실컷 빨아본 아이와 못해본 아이의 마음의 힘이 크게 차이나듯,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활동 계획을 세우고 함께하는 친구들과 협력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와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소통능력이 커갑니다. 활동에 도움을 줄 주변의 사람들과 자원을 찾아내고 연결하다보면 네트워킹 능력과 사회성이 성장하지요. 그리고 원하는 바를 해냈을 때의 성취감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도전의 과정과 성과를 나눌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커다란 자산이지요.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도전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꼭 무엇이든 잘해서가 아닙니다. 실패해도 배울 게 있고, 큰일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청소년은 ‘우리’의 가치를 알게 되지요. 여러가지 활동을 경험하면서 ‘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나는 무엇에 행복해하는 사람인지, 어떤 형태의 활동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지를 조금씩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동아리 활동은 진짜로 좋은 진로교육입니다. 직업체험테마파크에 가서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단순히 체험해본다고 진로에 대한 꿈이 정리되진 않으니깐요.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 활동해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자신에 대한 발견’이 꿈을 찾아가는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의 행복이 모여서 청소년들의 내일이 행복해집니다. 오늘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이 내일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친의 청소년들에게 외칩니다~!

“애들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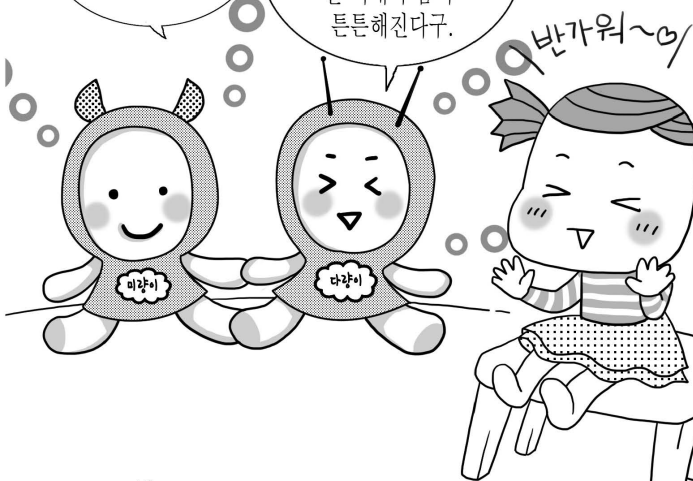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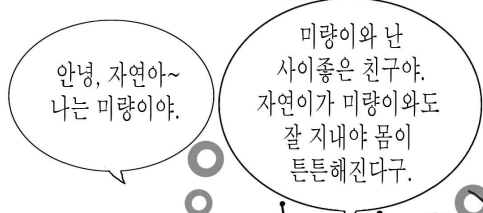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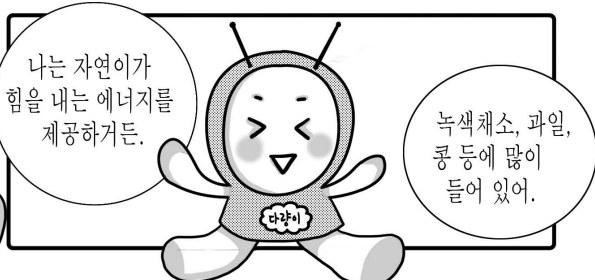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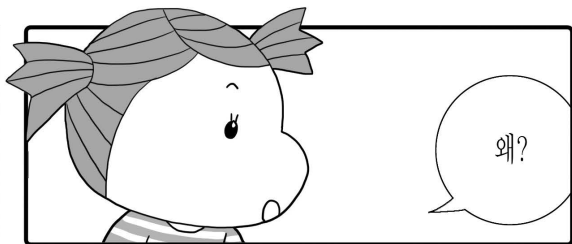
드대(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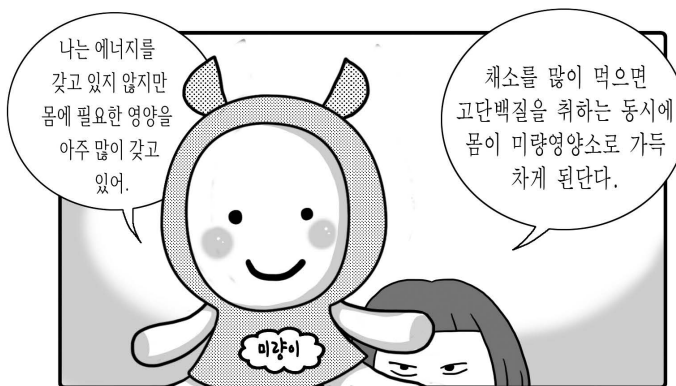
밥상 다섯. 채소 속 영양소가 궁금해!

글. 그림 연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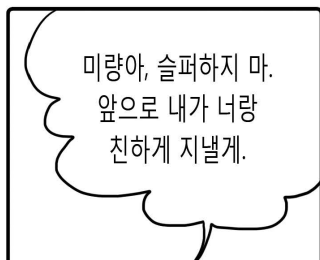
밥상독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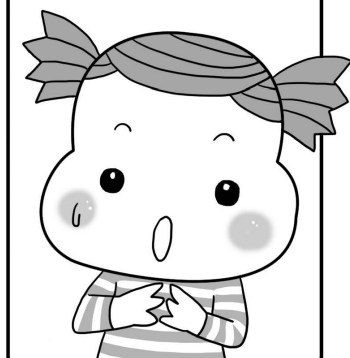
채소를 많이 먹으면
고단백질을 취하는 동시에
몸이 미량영양소로 가득
차게 된단다.



미량아, 슬퍼하지 마.
앞으로 내가 너랑
친하게 지낼게.



그런데 자연인 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어. 고기 없으면
밥도 잘 안 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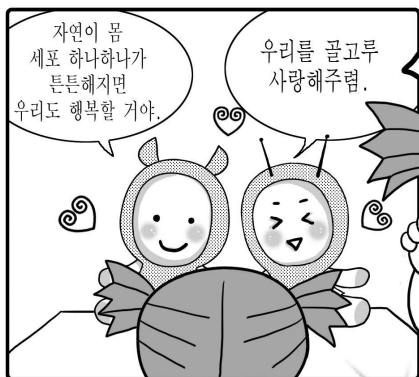


정말?
그럼 완두콩,
녹색채소, 흰콩도
잘 먹을 거야?

그...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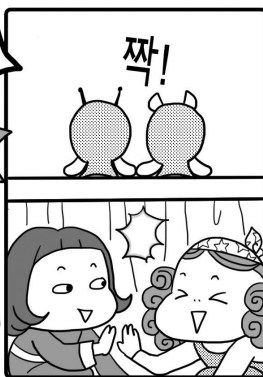
소중한 몸을
아끼는 방법은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야.



자연이 몸
세포 하나하나가
튼튼해지면
우리도 행복할 거야.

우리를 골고루
사랑해주렴.

알았어. 다량아, 미량아!
나만 믿어.
앞으로 채소 많이 먹을게.



짹!



<다량영양소와 미량영양소>

다량영양소는 칼로리를 함유한 영양소로 에너지를 제공한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이 다량영양소이다. 미량영양소는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양소로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 생물플라보노이드, 황산화제, 피토케미컬 등이 미량영양소이다. 우리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너무 많이 먹고 미량영양소는 불충분하게 먹는다. 과유불급! 이미 충분히 먹은 것을 더 섭취할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건강에 좋은 식사는 적은 칼로리에서 다양하고 많은 미량 영양소를 얻는 것이다. 미량영양소는 녹색채소, 과일, 견과류, 콩, 두부 등 자연식품에 듬뿍 들어 있다. 앞으로는 미량영양소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식품 중심으로 먹도록 하자.

밥상툭툭 <아침> 다음에 만나요~~^^

등대생협

초심으로 돌아가는...



웃음소리등대 풋볼 이 선 화

해마다 이맘때에는 늘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는 하는데 올해도 어김 없이 그 시간이 왔다.

3월에 마무리하는 등대 풋볼잔치. 올해는 생협 정기 대의원 총회와 함께 하게 되어서 준비할 일도 시간도 더 많이 들었다. 물론 일은 실무자분들이 하시고 나는 맘만 들었지만 소소하게 신경 쓸 것들이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고 슬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금새 너른 방을 꽉 채워 여기저기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다. 50명 이상의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시작한 총회는 식순대로 차분히 진행되었고 여러 가지 의안심사와 시상을 거쳐 2년 동안 고생하셨던 김영주 이사장님의 퇴임과 함께 차기 노진영 이사장의 선출로 마무리 되었다.

바로 이어진 풋볼 잔치의 첫 번째 등대별 한해돌아보기에서는 각 등대 이름으로 3행시 짓기, 동영상상을 직접 만들어 와서 보여 준 금손 가득, 정성 가득한 등대도 있었고 직접 예쁜 손글씨로 꾸민 등대, 사탕선물로 풋볼들의 엉덩이를 들썩이게 만든 등대 등 각 등대만의 매력을 뽐뽐 뽐어냈고 매해 많은 풋볼님들의 도전 정신을 부추기는 '이 구역의 브레인'은 바로 나' 도전 골든벨도 준비해주신 독서지님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게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개인적으로 촛불잔치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 촛불 의식의 시작. 이 시간이 되면 웬지 마음이 경건해지는 느낌이 든다. 잔잔한 음악을 깔아 주며 초를 하나씩 나누어 불을 켜고 ‘등대 안에서의 나’라는 키워드로 5자 토크로 진행되었다. 소동한 껍껍한 방에 둥글게 모여 흔들리는 촛불을 보며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 촛불님들이 일년동안의 등대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기억하고 싶을 것들, 지우고 싶은 것들...모두의 마음을 모아 불을 밝히기를.

마지막은 촛불들이 함께 직접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잘 마무리했다.

2018년 등대는 서로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알려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인 그런 등대이기를 소망합니다.



녹색가게

교복나눔장터 봉사활동 참여를 마치고...



청소년 자원봉사자 최지민

1~2학년 다니는 동안 봉사활동을 별로 하지 못해 봉사할 시간이 많았던(?) 내게 엄마가 부천YMCA에서 운영하시는 녹색가게 교복나눔장터에서의 봉사활동을 소개해주셨다. 오전, 오후까지 무려 하루에 7시간을 하는 거라 처음엔 좀 망설였지만 방학기간이고 좋은 기회인거 같아 시작해보았다.

첫날 가보니 살짝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한 면도 있었지만 하루, 이틀하면서 친숙해졌다. 생각보다 다양한 교복들이 많이 있었고, 하루 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우면 수많은 교복들과 옷걸이들이 천정에서 아른거리기도 했다.^^ 솔직히 집에서도 잘하지 않는 옷 정리를 이번에 이곳에서 이렇게 많이 해보게 되는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다.

사실 나 같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봉사점수를 채워야하는 게 있어서 참여하는 거라 대충 시간 보내고 가는 학생들이 많은지, 엄마는 봉사활동하기 며칠전부터 하려면 제대로 성실하게 맘쓸려보라고 말씀하셨었다.

솔직히 오전과 오후 시간에 걸쳐 하루종일 봉사하는 학생은 나밖에 없어서 좀 힘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쉬는 시간도 있고 매일매일 하시는 할머니 아주머니 자원봉사자분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할 일도 알려주셔서 할만했던 시간들이었다.



사람들이 많아 바쁜 날은 엄청 복잡한데 어떤 날은 사람들이 별로 없기도 했다. 엄마, 아빠도 마지막날 잠깐 오셔서 검사검사 내게 필요한 셔츠를 보러 오셨는데 판매 첫날 옷들이 많이 빠졌는지 별로 없다고 하셨다. 그래도 집에 두면 입지 않아 버려질 옷들을 이렇게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주 적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장터가 참 유용한거 같다.

며칠 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이런 일을 직업으로 해보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나중에 엄마 말씀을 들어보니 여기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무려 20여년이나 해오고 계신다고 한다. 내가 며칠해보니 쉽지 않던데 오랜 시간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엄마의 제안으로 경험하게 된 봉사활동이지만 이번 봉사활동이 내게 생각보다는 아주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혹시 봉사활동 생각 있는 후배들이 있으면 적극 추천하고 싶다.

선용

내가 선용과 인연을 맺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



선용회원 서숙경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입회 했었는데 그 딸래미가 사회인이 되었으니 20년이 다 되어오나 보다. 한 달에 두 번 정기 촬영 다닐 때면 어린 딸 둘을 데리고 다녔던지라 만나게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주셨던 밤, 호박도 받아오고 은행도 주워오곤 했었는데... 봄에는 촬영보다는 나물캐기에 더 열의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해마다 12월에 정기 전시 일정이 있었기에 난방도 안 되는 YMCA 암실에서 찬





수돗물에 수세를 하며 밤새워 인화를 해야 했고 000님은 덩달아 퇴근도 미루시고.. 너무 늦었지만 이번 기회를 빌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그 암실도 기억 속이나 남게 되었고 선용클럽의 자료들도 YMCA 역사관에 보관되어 있네요.

그동안 선용클럽은 필름카메라와 흑백 인화 작업에서 디지털카메라와 잉크젯 프린트 방식을 거쳐오며 컴퓨터로 후보정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진 역사의 일부를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선용클럽의 작품들을 보더라도 전시를 거듭하면서 이런 나의 고민의 흔적을 공유할 수 있음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작업과정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기위해 노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5년을 함께하고 계신 박혜연 선배님부터 8살 아들과 함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지현씨까지... 반복되는 삶인 것 같지만 깨어있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선용회원들은 모두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선용클럽 Forever~!







우리에게 대장들녘 지키기 운동이 절실한 이유

최진우 박사

(부천시Y 이사,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친환경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란 명칭으로 2023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올해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2020년 6월까지의 실시계획의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여름 <대장들녘의 전경>



‘대장들녘 지키기’에서 부천Y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제한구역 해제 단계) 및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단계)에 대응하기 위해 재두루미, 금개구리, 땃꿩 등 법정보호종을 모니터링하고 대장들녘과 도심의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도시환경을 위해 논습지 보전의 타당한 근거를 만드는 활동이다. 두 번째는 대장들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가족농부,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 생명포럼 등에 직접 참여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대장들녘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들 수 있다. 부천Y 회원 대부분은 대장들녘의 우수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만, 도시민으로서 대장들녘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대장들녘은 한강과 연결된 논습지로서 식량생산 뿐만 아니라 많은 야생 생물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생명의 땅이다. 이 곳은 한강과 연결된 동부간선수로에서 4월 중순부터 물을 끌어들이 모내기를 하고 10월 중순에 물을 빼어 추수하는 시스템으로 유지된다. 벼농사를 위해 오랫동안 계절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적정한 수위와 수량을 관리하고 비옥한 토양 및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기능을 해오고 있다. 김포공항습지 시민조사단의 생태계 조사 및 평가보고서(2014년)에 따르면 대장들녘에 총 32종(야생조류 27종, 양서·파충류 4종, 포유류 1종)의 법정보호종이 출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대장들녘은 민족의 영물인 재두루미가 해마다 겨울에 도심 가까이 찾아오는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곳이다.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멸종위기동물 Ⅱ급)는 전 세계에 7,000마리 정도 남았으며 러시아의 아무르지역, 중국북동부, 몽골 지역에서 번식하고 한국, 일본, 중국 남동부에서 겨울을 지내게 된다. 2012년 겨울 재두루미 63마



천연기념물
제243-1호
대장들녘의
독수리



올해 대장들녘에 찾아온 재두루미들



리가 대장들녘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014년 겨울까지 매년 약 30마리가 우리 곁에 찾아왔다. 한강하구 김포 홍도평야의 개발로 농경지가 감소하고 먹이활동이 어려워 부천까지 찾아온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평화로웠던 축복의 시간도 잠시, 겨울철 대규모의 논성토 작업으로 2015년에 재두루미의 숫자가 4마리까지 줄어들었고, 2016년에는 2마리만 잠시 목격될 뿐이었다. 2017년에는 11월 25일 대장들녘 생물다양성대탐사 행사에서 재두루미 2마리가 다시 발견되었다. 이번 겨울에 논성토 작업이 줄어들자 12월에 5마리, 7마리, 14마리까지 증가한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셋째, 대장들녘은 멸종위기에 처한 금개구리가 넓게 분포하고, 장마철 땡꿍이 울음소리가 가득한 도시에서 희귀한 생명의 논습지이다. 5년 전부터 김포공항습지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II 급인 금개구리와 땡꿍이가 발견되어 생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주목을 받아왔다. 대장동 주민에 의하면 옛날부터 논에 참개구리보다 등에 2개의 금줄이 선명한 금개구리가 많았으며, 여름철 마을에 땡꿍이 울음소리가 너무 소란스러워 땡꿍이 마을로 불리었다고 한다. 최근에도 휴면시가 3단지 앞 논에서 금개구리와 땡꿍이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작년에는 친환경농법 뿐만 아니라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곳에서도 목격되었다. 대장들녘 전체가 금개구리, 땡꿍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곳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대장동은 우리 아이들이 강남에서 돌아온 제비를 볼 수 있는 부천의 마지막 남은 곳이며, 수도권에서 생태문화적으로 중요한 제비마을이다. 요즘 아이들에게 개구리는 ‘혐오동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제비는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정서적으로 아주 가깝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진다. 2015년 부천에서 제비를 보겠다는 흥미와 호기심으로 ‘대장동 학생제비모니터링단’이 생겼고, 작년에는 모니터링결과를 정리하고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 부천시의회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작년 대장동 마을에서는 34개의 번식둥지에서 성조 27쌍이 새끼 127마리를 키워 강남(중국 양쯔강 이남 지역)으로 돌아갔다.

2016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표한 전국 농촌마을의 제비 서식밀도가 20~25마리였는데, 그 중 경기도는 최하위인 4.2마리였다. 대장동 마을은 360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자연마을이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비를 받기며 함께 살아온 주민들의 인심과 배려가 현재의 제비와 도시의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대장들녘은 차고 신선한 바람을 생성하여 도시의 폭염과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도시의 중요한 자연 인프라이다. 부천에서는 굴포천과 주변 유역에 형성된 논경작지가 성주산과 원미산으로 연결되는 차고 신선한 바람 생성지와 바람통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바람통로는 도시에서 발생된 자동차의 질소산화물과 공장,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가 도심에 정체되지 않도록 확산시켜 대기오염 농도를 저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천의 중상동 개발 이후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지표면온도 변화 회귀분석 연구결과, 논에서 시가지로 변화한 곳은 평균 2.840℃ 온도가 상승했고, 녹지율 65%를 확





못자리와 흰뺨검둥오리

보해야만 1℃ 이하로 온도 상승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2차 대장들녘 생명포럼에서 계명대학교 정웅호교수는 부천의 환경용량은 이미 초과하였고, 대장들녘이 개발된다면 부천 도심의 폭염과 대기오염은 가속화 될 것이며 도시민의 주거환경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섯째, 대장들녘은 도시 어린이들이 들판에서 뛰어 놀며 개구리, 제비, 메뚜기, 잠자리를 실컷 보면서 생태감수성을 일깨우고, 생명과 공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야외 체험학습장이다. 이미 대장동은 농업체험 및 환경체험 활동지역의 중요한 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부천시는 손모내기 체험, 우렁이 방사, 메뚜기 잡기, 벼베기 체험 등 친환경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오정동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추억의 논썰매장, 별자리관찰 가족캠프, 대장동 논학교 프로그램은 도시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인기가 많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발작물 체험, 대장동 농촌 체험, 야생조류 생태, 논생물 생태, 곤충생태 체험 등 ‘오정 희망마을 생태 학교’ 프로그램을 지



대장들녘 가족농부들

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농부에게 논을 임대하여 도시민 가족농부 공동체를 기반으로 토종벼를 심고 금개구리쌀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산업단지로 대장들녘이 사라진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래세대의 살아있는 체험 환경교육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다.

부천시청과 부천상공회의소는 대장동 산업단지 조성으로 미래 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지가 상승으로 부천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세수 확보로 부천시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산정은 개발로 인해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의 비용과 개발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반드시 계산하여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 자연은 단순한 '환경'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본'으로 이해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대장들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에 대한 시민의 합의가 필요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장이 필요하다.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운동은 ‘지속가능한 부천’의 미래를 만들며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데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장들녘의 토지는 사고 팔수 있는 ‘사유재’이지만 그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공유재’이다.** 논습지가 만들어진 차고 시원한 공기, 풍요로운 지하수와 토양은 도심의 폭염과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재두루미, 금개구리, 땃강이 등 다양한 못생명의 서식지, 아이들의 생태감수성을 일깨우는 자연놀이터, 협력과 공생의 농업공동체 유산을 지켜야 한다. **대장들녘의 ‘공유적 가치’를 사유적 개발에서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부천을 희망하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적 가치’로 인식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적극적인 시민운동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캠페인

지난 1월 부천지역의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을 발족하여 대장들녘 반환경 산업단지개발을 저지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달 ‘대장들녘 생명포럼’을 열어 대장들녘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함께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며, 시민조사단 활동, 토종벼 논농사활동도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3월 24일(토)에는 부천Y 시민사업위원회가 주관하여 ‘대장들녘 지키기 첫번째 시민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이 날엔 거리를 지



나가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캠페이너들이 나눠주는 유인물을 버리지 않고 유심히 살펴보며, 부천의 대기질을 함께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다수의 부천시민들이 대장들녘의 존재와 산업단지개발 계획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전국 최하위 녹지율, 전국 2위의 인구밀도로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도시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해서라도 자연녹지를 늘리는데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하며, 부천의 마지막 논습지인 대장들녘을 훼손하는 방향보다는 보존하고 지켜가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천시 뿐만 아니라, 부천시민들도 건강도시, 문화도시 부천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천시민 모두가 대장들녘을 알 때까지, 부천 Y의 시민캠페인은 주욱~ 계속됩니다!





“부천 Y 대장 들녘 지키기 시민 캠페인”을 다녀와서

해바라가등대 촛불 김 홍 여

맑은 파란 하늘을 본 지 언제였는지.. 그 기억이 가물가물 할 때 즈음...
지금 나의 위치를 생각 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솔직히 책임감 반, 부담감 반을 안고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몇 년 전부터 부천 Y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장들녘 지키기” 운동!

막상 나서니, 그 날의 공기는 너무 탁하고 7세인 둘째를 데리고 거리에 나서는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너무 탁한 공기에 십 여분 캠페인을 했는데 목이 너무 까끌거리고 답답함을 느꼈다. 마스크를 쓰고 나온 대부분의 시민들 사이로 “미세먼지 OUT” “산업단지개발 반대”를 외치며 거리를 누빈지 2시간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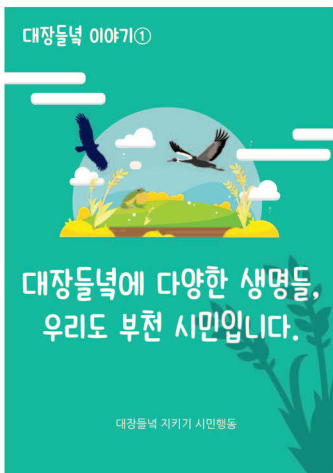


시민들에게 홍보 리플렛을 주었을 때 곧장 바닥에 버려지면 어떡하나? 시민들의 외면이 두려웠던 나의 우려와는 달리, 캠페인하는 시간동안 단 한 분도 홍보 리플렛을 바닥에 버리는 시민은 없었고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응원과 격려의 눈빛을 보여주던 부천 시민들의 모습에 너무도 감동을 받았고 감사의 마음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쉽지 않은 첫 여정이었지만 부천 시민으로 살아가는 한, 부천YMCA 회원으로 살아 가는 한, 더 이상 간과할 수도 없고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이 결정 될 만한 일이기에 더욱 더 관심갖고 함께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욱 더 확고해 졌다.

다음번 캠페인에는 더 많은 아스단, 어린이Y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참석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래 본다.



평화로운 시민공동체로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부천시민평화대학 - 회복적 정의 워크숍

현대사회는 급격한 변화 속에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오히려 개인과 개인, 이웃과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비평화적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부천시민평화대학은 회복, 책임, 존중을 핵심가치로 놓고 갈등을 변화와 성장의 원동력으로 전환하고 응보적 정의가 아닌 회복적 정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해 회복적 도시와 평화 공동체를 목표로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 어려움을 회복적 실천을 통해 함께 해결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시민공동체성과 평화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일반시민들과 회원들이 참여하는 부천시민평화대학은 갈등조정과 평화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의 과정으로 3년 계획으로 진행하며 1년차에는 기본과정으로 회복적정의 워크숍, 2년차는 심화과정으로 분야별 진행자 역량강화, 3년차는 실천과정으로 평화활동 전문가 필드워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기본과정 ‘회복적 정의 워크숍’이 오는 4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총4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부천시 청소년상담실 032) 666-6030

※ 기본과정 ‘회복적정의 워크숍’

1step

4월9일(월)~5월8일(화)/오전10시~오후1시
회복적 정의 & 생활교육 이해, 신력서클

2step

6월4일(일)~6월26일(화) / 총8회(24시간)
관계형성을 위한 공동체 신력서를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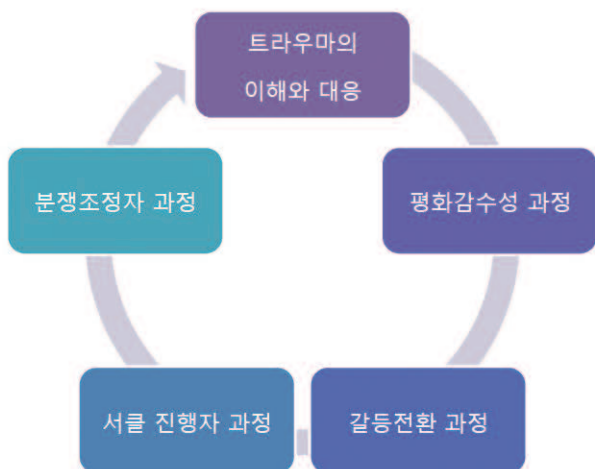
3step

9월3일(월)~10월2일(화) / 총8회(24시간)
갈등현안, 문제에결서클, 공동체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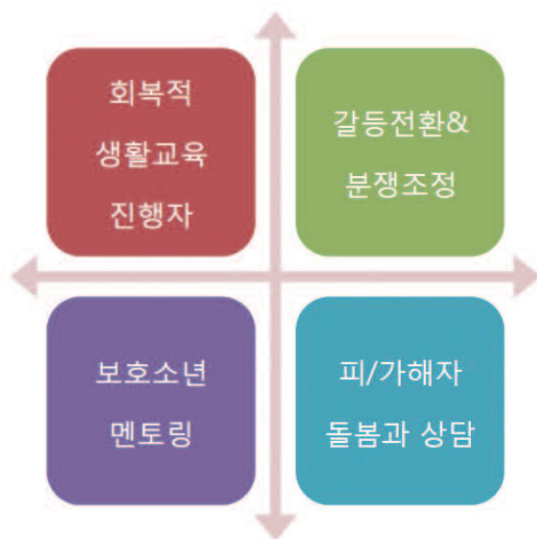
4step

11월5일(일)~11월27일(화) / 총8회(24시간)
갈등조정과 회복적대화모임, 조정자 역량강화

※ 심화과정 '분야별 진행자 역량강화'



※ 실천과정 '회복적 정의 필드워크(Field Work)'



2018년 봄 직원 수련회를 다녀와서



야기스포츠팀단 유혜수

2018년 상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치유하고 실무자 간의 교류를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아가는 봄 수련회를 3월 3~4일, 1박 2일 동안 다녀왔다.

평화순례와 평가제도 워크숍 주제로 봄 수련회는 시작되었다. 아직은 두툼한 패딩이 필요한 날씨였지만,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위한 '봄' 수련회였기에 날씨와는 상관없이 없었다. 벌써 다섯 번째인 직원수련회이기 때문에 시작되기 전 엄청난 기대감과 설렘은 없었다. 하지만 남북 분열, 전쟁으로 인해 평화가 깨지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철원, 수없이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백마고지 등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을 탐방한다는 것으로 평화교육을 위하여 철원까지 가야한다는 점은 마음을 조금은 움직이게 하였다.

처음 일정이었던 아치의 크기, 교각의 구조체가 외관상으로 구별될 정도로 다리의 중심부에서 남북으로 각각 다르게 시공되어 있으며, 남북분단과 전쟁의 독특한 상황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는 승일교와 고석

정을 가보니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부천과는 다르게 눈이 가득 쌓여



있더니! 하얀 눈을 보니 철원에 왔다는 것을 알 것 같았다. 평화교육을 받을 평화로운 마음이 준비되었다. 통일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본적 없었지만 DMZ 근처에 갈수록, 우리 모두의 영토이지만, 민간인인 우리들은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생각에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했다. 평화를 위한 씨앗이 되겠다는 정지석 목사님과 함께 국경선 평화학교에 갔다. 평화의 씨앗 정지석 목사님의 열정과 평화를 위한 간절함이 느껴지는 강의였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연수여서 피곤할 법도 하였지만 평화를 위한 강의 태도는 최고였다. 그렇게 계속되는 강의와 식사는 즐거운 연수를 지내고 있다는 표식 같았다. 숙소에 도착한 후 ‘비영리 조직의 실무자 평가제도’라는 강의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연차 별로 나뉘어진 공동체라 그런지, ‘평가’라는 딱딱한 주제를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다.

이튿날 아침, 보슬보슬 내리는 비와 함께 높지 않다는 소이산에 오르며 침묵명상을 하였다. 거친 숨소리가 명상의 침묵을 깨주었던 활기찬 아침 일정이었다. 비록 안개로 가득 차 저 멀리 북한을 볼 수는 없었지만, 다같이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노래는 모두의 마음을 울리지 않았을까? 다시 한 번 통일에 대하여, 우리 모두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기대 이상의 연수였다.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시간이었다.



집에 대한 생각 「작은 집 큰 생각」



광장기자단 왕정현

2년 마다 전세 계약을 한다.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다.
내 몸에 맞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은 어디에 있을까?

사실 우리는 모두 집에 엄청나게 집착한다. 집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집의 크기에 집착한다. 자동차의 크기와 집의 크기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에 따라 현대의 집들은 점점 커졌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 또한 비대해져서 집은 점점 좁아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집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p.51

우리는 이사 오면서 사무실 집기를 새로 장만할 때 같이 사온, 지붕이 달린 그네를 그곳에 놓았다. 그리고 튼튼이 그곳에 앉아서 흔들거리며 놀았다. 흔들흔들... 비록 손바닥만 한 작은 마당이었지만 그곳에는 봄이 있었고, 여름이 있었고, 낙엽을 태우는 가을이 있었으며, 눈사람을 만드는 겨울도 있었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마당이라는 것이 집에 있으면 이런 지평이 열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면서, 마치 생전 처음 마당을 만나는 사람처럼 즐거워했다. p.157

‘작은 집’이란, 정말 크기가 작은 집이라기보다는 ‘적절한 집’을 말한다. 즉
집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로 돌아간 소박한 집, 적당한 집, 본연의 집을
의미한다. 더불어 거품을 뺀 집, 환경을 생각하는 집,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
는 집을 의미한다. 공간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편
안한 재료로, 내 몸에 맞는 규모로 짓는 집... 그렇게 내가 사는 공간을 가꾸
는 것도 문화다. p.166

나무 한 그루가 있는 집을 꿈꾼다.
방의 개수, 학교, 마트, 병원, 대중교통 등
생활의 편리성 앞에서 다시 아파트를 선택하게 될까?
이번만큼은 한 번 더 생각하며 고민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할 수 있는 집으로.
나무 한 그루가 있는 집으로.

[출처]
저자 임형남, 노은주
교보문고
2011.11.07



진료실에서 나누는 세상 이야기

진짜 우황청심원계를 만들자



박 중 훈

(부천Y 증경이사장, 삼화한의원 원장)

우황청심원은 우리나라에서 연 1천만 개 이상 팔려 아무나 아무증상에나 막 먹는 약이다. 그럼에도 진짜는 없다. 또 진짜라면 위험한 약이다. 만병통치의 천하영약을 두고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방 우황청심원은 없고 가짜나 기껏해야 변방이 있을 뿐이다. 또 원방에는 독극물 약제가 들어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한의계에서는 ‘우황청심원 잘못 먹으면 중풍에 걸린다.’는 격언으로 경계를 한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기재된 우황청심원은 31가지 약재로 되어있다. 그중에 경면주사는 황화수은이라는 중금속이, 석웅황에는 황화비소라는 극독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약제는 독성으로 병독을 치료한다. 잘못하면 수은이나 비소중독이 된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제약사의 청심원은 이 약재들이 빠져있다. 또 주요 역할을 하는 사향, 우황, 서각(코뿔소 뿔)도 문제다. 사향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S)으로 엄격히 규제하여 귀하고 순금보다 서너 배 비싸다. 그래서 L-무스콘(합성사향)을 쓰거나 조금 고급제품에는 사향고양이(영묘향)를 대용한다. 서각은 아예 유통금지로 있다면 불법 밀수품이다. 또 우황은 더 귀하다. 결국 인조우황이나 수입우황(당우황)을 쓴다. 하지만 인조우황은 효과가 떨어지고 수입우황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중금속, 독극물, 희귀, 고가 약품이 빠지니 당연히 가짜 아니면 변방일 수밖에 없다. 이리고서 무슨 기사화생

의 영약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원래 우황청심원은 중풍 전조증이나 뇌졸중으로 인사불성, 가래 끼고, 말을 못 하며, 입과 눈이 돌아가고, 팔 다리를 못 쓸 때 사용한다. 열성 경기, 발작이나 실신 등 위급상황에 부작용을 감내하고라도 쓰는 상비구급약이다. 이렇게 각성효과도 있지만 신경안정 효과도 좋아 웬만한 두통, 어지러움, 가슴 답답증, 불안, 초조, 우울증 등 정서장애에도 청심원을 먼저 찾는다. 심지어 근거도 없이 음주 운전의 적발을 피하는데도 활용한다.

부작용은 없을까? 아니 있다. 피부발진이나 소화 장애 등은 부작용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또 부종이나 무력감, 사지경련, 마비 등도 나타날 수 있다. 허나 저혈압, 몸이 찬 사람, 심장병 환자, 극도로 소심한 사람은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특히 뇌졸중이 아닌 쇼크 실신에 진짜 우황청심원을 쓰면 안 된다. 잘못 하면 효과는커녕 중풍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최근에 수험생이나 각종 면접 시 청심원을 복용하는 경우가 상식화 되었다. 그런데 안정 효과보다 오히려 가슴이 더 두근대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긴장이 풀리는 역효과가 나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사전에 시험 복용을 해보고 전날이든 당일 이든 복용을 한다. 그래도 불안하면 청심원보다 안궁우황환 같은 약을 복용하면 좋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통제품들에서 위에서 예로 든 약재가 빠져 부작용도 크지 않다.

우황청심원에 몇 가지 팁을 제공한다. 우선 청심원과 청심환은 크기의 차이를 말하는 용어이니 따질 것이 없다. 단 6~10가지 정도의 약재로 만드는 중국산은 청심원이 아니라 청심환으로 표기되어있다. 유명한 동인당 제품이고 뭐고 중국산은 청심원이 아니다. 둘째 저가품과 고가품은 사향과 우황이 함량 차이로 구분한다. 원칙적으로 환제가 수용액보다 좋으나 쇼크, 실신 상태에는 수용액이 복용 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기사회생의 영약 진짜 우황청심원은 구할 수 없는가? 합법적으로 없다. 로컬 한의원에서조차 청심원을 제조하면 불법이다. 구급상비약으로 준비할 수 없단 말인가? 있다. 엄마들의 금반지계를 하듯 진짜 우황청심원계를 하자. 뜻 맞는 사람 끼리 모여 약재도 같이 구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만들어 나눠 가지면 된다. 선조들의 ‘오래된 미래’의 지혜도 체험하고 우황청심원도 제대로 써보자.

“우리는 홍익인간”

부천YMCA등대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한 면 희



홍익인간(弘益人間)이 무어나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물었더니 한참을 곤란해 하다가 “빨강계 익은 사람이 아닐까요?”라고 말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에게는 기억 속 멀리서 가물가물할 뿐 가슴에 와서 닿지는 않나 봅니다.

홍익인간은 보통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이라고 합니다. 단군신화에 의하면 환웅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나라를 열었을 때의 이념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입니다.

1949년에 법률로 제정된 교육법 제1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홍익인간에서 우선 인(人)을 살펴봅니다. 단군신화에서 곰과 뱀은 ‘원화위인(願化爲人)’하니 위인 즉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은 ‘되어가는(becoming) 존재’이며 법적으로는 20세가 되면 성인(成人)으로 인정합니다. 성인은 ‘된 사람’이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인과 같은 뜻인 어른은 ‘어르다’에서 나온 ‘어르는 이’입니다. 어른은 다 자란 사람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을 해야만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른은 ‘어르다’가 ‘어우르다’의 준말이니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른이 되면 입 안쪽의 끝에도 어금니가 나는데 ‘사랑니’라고 부릅니다. 사랑니가 나면 이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사랑니를 ‘wisdom tooth’라고 하니 번역을 ‘지치(智齒)’라고 했습니다. 지치가 나면 지혜롭게 사리 분별을 해야 하는 어른입니다. 종합하면 어른의 조건은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음은 인간(人間)입니다. 인간은 사람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사람 인, 사이 간’으로 사람 사이이니 ‘사람이 어울려 사는 세상’입니다.

홍익(弘益)은 ‘넓을 홍, 더할 익’인데 ‘널리 이롭게 함’이라고 풀이합니다. 풀이에 보태자면 홍은 ‘넓게, 크게, 높게’, 익은 ‘더하게, 이롭게, 넉넉하게, 흘러넘치게’이니 사람이 성장하여 ‘된 사람’이 되고 서로 협동하여 ‘이치에 맞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아무리 잘 생기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사람됨’에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된 사람’과 ‘덜된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해 주지 않으며 ‘된 사람’만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의 말씀이 “먼저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결론적으로 홍익인간은 우리 모두가 ‘못된 사람’에서 ‘된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유식한(?) 다른 말로 하면 ‘성통공완(性通功完)하고 재세이화(在世理化)한다’입니다.

부천Y 제37차 정기총회

지난 2월 22일(목) 오후 7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YMCA 제37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1부 공동예배 후, 지락피락의 기타공연으로 시작된 2부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 사업 및 재정보고와 현장수정위원회 경과 보고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찬반의견을 듣고 표결에 붙여져 91명 재석인원 중 85명이 찬성하여 현장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어 만기조 이사 김영주, 원종호, 허상운 3명의 이사가 재공천되었고, 양은희, 김원규, 김옥선, 이시영, 최진우 5명의 이사가 신규공천 되었다. 또한 총회선임 이사후보자전형위원으로는 이선화, 이보미나, 김지현 위원이, 현장수정위원으로는 김동해, 서숙경, 강호정 위원이 선출되었다.



주임회에서 선출된 이사님들께 축하노래와 선물을, 간사회에서 지난 35년간 부천Y를 위해 헌신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제주도로 내려가시는 박혜연증경이사장께 축하노래와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박혜연 증경이사장께서 후원해주신 한라봉과 이사회에서 후원해주신 육개장과 떡으로 소박한 밥상을 나누며 37번째 정기총회를 마무리하였다.

2018년에도 부천Y를 위해 애써 주실 이사님들과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8년에도 회원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부천Y가 되겠습니다.



제2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사·간사 대화모임

2018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6층 신나는 방에서 이사12명, 간사13명이 모여 2차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화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 마음을 여는 시간으로 하루를 각자의 색깔로 표현하며 마음상태를 알아보고 이해하는 마음 나눔을 하였습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가라앉은 분위기를 서로 몸을 부딪치며 활동하는 가운데 한결 편안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중 서클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한 간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느꼈던 아픔과 힘들음을 공유하였고, 이후 서로 각자의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때론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핑 돌기도하였고 차마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까 물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모아 서클을 통해서도 일련의 과정 중 궁금했던 것들을 개인에게 질문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솔 되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이 위로하며 배려하는 마음들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화 모임을 통해 최근 2~3년간의 시간을 성숙의 기회로 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YMCA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실체이며 평화 공동체,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는 YMCA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새기는 자리였습니다.



2018 상반기 클럽대표자회의

4월 3일 화요일 저녁 7시, 6층 신나는방에서 2018년 상반기 클럽대표자회의가 있었습니다. 10개 클럽 20여분의 임원들과 클럽협력간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박한 밥상 나눔으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YMCA”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김영주 이사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각 클럽 임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클럽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2017년 부천YMCA 사업을 영상으로 보고 받고, 2018년 부천YMCA 3대 과제 중 하나인 “대장들넌 지키기”에 대한 이야기를 최진우 이사를 통해 들은 후, 김기현 사무총장과 6.13 지방선거에 대한 숙의토론도 진행하였습니다.

7월에 있을 철원평화순례와 8월말 북중러접경지역 평화기행에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클럽대표자회의를 마치며, 2018년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각 클럽의 홍보에 더욱 힘써 볼 것을 다짐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클럽 임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8 교복물려입기 나눔장터 2월 20일(화) ~ 27일(화)



올해로 21회를 맞는 '교복물려입기 나눔장터'는 부천시청과 원미어울마당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중,고등학교 졸업생 290여명이 3,197점의 교복을 기증하였고, 부천시민 1,400여명이 교복구입을 위해 방문하였다. 3월부터는 상설매장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 위치는 원미어울마당 지하1층 교복은행

상설매장,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오후 5시, 문의는 032-613-6821. 무상 기증된 교복의 판매수익금전액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12월에 전달된다.

[쌀한톨] 제4차 정기총회



지난 2월 6일 오전 10시, 5층 나눔방에서 식생활교육 시민강사단클럽인 '쌀한톨'의 제4차 정기총회가 있었다. 동영상으로 2017년을 활동을 돌아보고 회계보고 및 새로운 임원선출, 2018년 활동계획을 공유하였다. 올 한해도 생명이 담긴 건강하고 바른 먹을거리 교육에 힘쓰는 활발한 교육활동을 기대해보며!

2018년 아기스포츠탄 입단식



2018년 아기스포츠탄 입단식이 3월 7일(수)에 개최되어, 287명(5세 102명, 6세 88명, 7세 97명)이 입단하였습니다. 아직 Y가 낮은 5세 어린이부터, 이제는 능률한 7세 어린이까지 활기차게 한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8 상반기 신입실무자교육



지난 3월 8일(목), 올 상반기에 새로 입회한 신입실무자교육이 진행되었다. 유아교육팀(박정현, 장연수), 어린이교육팀(김영서, 임소라), 체육교육팀(김수연), 송내동청소년문화의 집(라단비, 박준서, 심소영), 부천시니어클럽(박형희) 총 9명의 신입실무들과 함께 이그나이트로 자기소개하기로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YMCA의 역사와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고, YMCA의 사업과 조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제6차 정기총회



지난 3월 27일, 부천Y 6층 신나는방에서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여섯번째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작년 한해의 활동들을 돌아보고, 잉여금으로 4% 배당, 10% 법정적립금 적립을 결정하였으며, 2호기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 한해에는 부천시민에너지네트

워크 활동을 통해 부천의 에너지자립실행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부천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힘을 다짐는 자리가 되었다.

특별한 날 기부

- 등대생협 정분연 촛불님께서 한해 등대활동을 마무리하며 등대기금으로 1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 주요일정 •

대장들nek 지키기 시민캠페인

일시: 4월 14일(토)

장소: 원미산진달래축제 현장

일시: 4월 22일(일)

장소: 춘덕산복숭아축제 현장

제4차 대장들nek 생명포럼

일시: 4월 19일(목) 오후 7시

장소: 원미어울마당 3층 진달래홀

주제: 시흥시 호조벌 생태자원화 정책의
성과와 전망

발표: 김윤식 시흥시장

제36차 창립기념예배

일시: 4월 10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5층 체육관

유아교육팀

5세 대면상담

일시: 3월 26일

6세 대면상담

일시: 4월 30일

들살림 캠프

일시: 3월 29일~30일, 4월 3일~4일

장소: 양평 고래실마을

공장과자 안먹기

교육주간: 4월 2일(월)~13일(금)

서약식: 4월 6일(금)

인형극 관람: 4월 11일(수)

공동체 한마당

일시: 4월 28일(토)

장소: Y회관

어린이Y

역사기행단: 아차산성기행

일시: 4월 14일(토)

장소: 아차산성

자연기행단: 양수리 딸기체험장

일시: 4월 21일(토)

장소: 양수리 딸기농장

어린이Y 소망반 숲체험

일시: 4월 26일(목)

체육교육팀

청소년 응급처치교육

일시: 4월 19일(목)~24일(화)

장소: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수영장 재등록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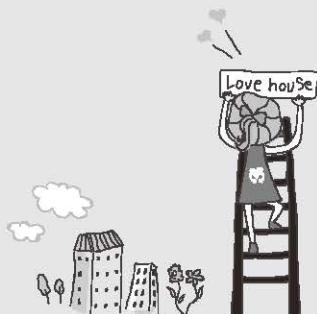
4월 25일 반변경

4월 26일 신규등록

광명Y 법씨학교 생존수영교실

일시: 3월 30일~7월 6일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공공수련시설프로그램 <봉산탈춤>

일시 : 4월 4일~5월 23일 매주 수요일 19~21시

장소 :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소리나래

나래 자치조직 발대식

일시 : 4월 14일(토) 11시~14시

장소 :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행복나래

제주평화기행

일시 : 4월 27(금)~30일(월)

장소 : 제주도 일대

2018 경기꿈의학교 치유꿈의학교 온새미로

<마을아이 데뷔 플레이숍(입학식)>

일시 : 5월 12일(토) 10시~12시

장소 :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행복나래

순천만생태기행

일시 : 5월 18일(금)~20일(일)

장소 : 순천, 여수일대

청소년상담실

부천시민평화대학 : 회복적정의 워크숍

일시 : 4월 9일, 10일, 16일, 23일, 24일, 30일,

5월 1일, 8일 (총8회)

매주 월,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 6층 신나는방

청소년 또래상담교육

일시 : 3월 30일 / 4월 13일

장소 : 소명여자중학교, 역곡중학교



직원 동정

• 부천YMCA의 새로운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아기스포츠팀

회원운동팀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시니어클럽

박정현, 장연수 선생님

채시온 선생님

라단비, 박준서, 심소영 선생님

박형희 선생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 클럽일정 •

그린합창단

정기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6층 신나는방

좋은아빠 모임

정기모임 및 월례회

일시: 4월 2일(월) 오후 8시

장소: 5층 나눔방

목공체험

일시: 3월 11일(일)

장소: 도당동 123번지

갯벌체험

일시: 4월 21일(토)

장소: 몽산포 해수욕장

등대

등대위원회

일시: 4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4층 사랑방

지기월례회

일시: 4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6층 신나는 방

녹색가게

4월 운영위원회

일시: 4월 9일(월) 오후 2시

장소: 5층 나눔방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주제:웃음치료)

일시: 5월 14일(월) 오전 11시

장소: 5층 나눔방

자원봉사자 야유회

일시: 5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한국민속촌

사진클럽 <선용>

정기모임 및 월례회

일시: 3월 16일(금) 오전 10시

3월 28일(수) 저녁 7시

장소: 소사사진작업실

사진출사(1)

일시: 3월 1일(목)

장소: 춘천 소양강

사진출사(2)

일시: 4월 8일(일)

장소: 인천 부두

사진출사(3)

일시: 4월 20일(금) ~ 22일(일)

장소: 제주도

청소년상담클럽 <디딤돌>

정기모임 및 월례회

일시: 정기모임 매주 목 오전 10시

3월 8일~22일 / 4월 5일~19일

월례회 3월 29일 / 4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5층 나눔방

청소년평화교육연구모임

일시: 3월 15일, 22일 / 4월 5일, 19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5층 나눔방

식생활교육클럽 <쌀한들>

일시: 4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5층 나눔방

젬배 소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장소: 6층 신나는방



철원 평화순례

철원평화순례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노동당사



소이산

● 일시 : 2018년 7월 14일(토)

시간	프로그램	비고
08:00~10:00	출발 및 도착	
10:00~11:30	승일교, 고석정	
11:30~12:30	점심	콩마을 033-455-9284
12:30~03:30	DMZ 평화순례	
03:30~04:30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	
04:30~05:30	소이산	
05:30~06:30	저녁	황금밥상 033-455-4408
06:30~8:00	출발 및 도착	

● 모집인원 : 40명

● 강사 : 정지석 목사, 전영숙 부장(국경선 평화학교)

● 참가비 : 2만원

문의 : 부천Y 회원운동팀(032-325-3100)

북·중·러 접경지역 평화순례

-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 9월 1일(토), 5박 6일
- 인원 : 25명
- 일정 : 인천 - 대련 - 여순 - 비사성 - 단동 - 봉황산 - 환인 - 집안 - 장백현 - 송강하 - 백두산 서파 - 화룡 - 연길 - 훈춘 - 도문 - 용정 - 연길 - 인천

※ 항일역사유적지, 고구려 유적지, 발해유적지, 북한마을조망, 기독교유적지, 윤동주생가 (2.8독립선언과 3.1운동 99주년, 독립운동 관련 중요 유적지 중심으로) 등

- 강사 : 김흥수 교수
(목원대, 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 한국YMCA평화통일협의회 운영위원장)
- 참가비 : 약 130만원



문의 및 신청 : 부천Y 회원운동팀(032-325-3100)